TV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⑤:5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1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15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튼튼생활체조(재)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KBS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완전정복 55 바른말 고운말	15 장애인 주간 특집 사랑의 가족 45 인간극장 스페셜	00 MBC 여성토론 위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20 모큐드라마 〈싸인〉(재)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TV 속의 TV	00 SBS12뉴스 30 KBS 열린토론회(재)
1	30 뉴스 추적자	00 TV 아고라 50 콘서트 필	35 힐링 투어 아생의 발견	20 MBC네트워크 특선 〈산·들·바다의 노래〉	30 피우자 민들레
2	40 직언직설	30 영상앨범 산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00 SBS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50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빠뿌야 놀자 55 TV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 뉴스 10 키즈CSI 과학수사대 40 헬로 키즈 룰루랄라 동물여행(재)	10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재)
4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튼튼 생활 체조(재)	25 꾸러기 케라톱스 코리요 55 밥상의 신 (첫회·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매일엄마 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MBC 가요 베스트	05 날씨와 생활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천상 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
8	30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 8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55 긴급출동 24시	00 드라마 스페셜 〈그녀들의 완벽한 하루 1부〉	00 월화 특별기획 〈기황후〉	00 월화드라마 〈신의 선물-14일〉
11	00 혼자 사는 여자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공간다큐 〈그 곳〉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30 갈데까지 가보자(재) ①:40 그때 그 사람(재)	30 문화 책갈피 ①:10 T타임 40 알약톡톡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해외걸작드라마 〈삼총사-군인의 길〉	15 MBC 뉴스24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스포츠 특선 2014 한강마라톤	35 나이트 라인 ①:05 SBS 골프

EBS

05:40 나의 성공비결
06:10 EBS 특별기획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재)
07:00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07:15 오스카의 오아시스(재)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두다다쿵(재)
08:35 방귀대장 뿡뿡이
08:50 곰디와 친구들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09:2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09:35 빼꼼
09:40 부모 〈아이를 위한 식단〉
10:10 EBS 문화 센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타이완〉(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3:05 지식채널e
13:10 즐거운 수학 EBSMATH
13:20 와글와글 친구들
13:30 꼬마 기사 마이크
13:45 치로와 친구들
14:00 헬로 코코몽
14:15 시계마을 티키톡
14:30 부릉!부릉! 브루미즈
14:45 미앤마이로봇
15:00 초능력 특공대
15:15 모피와 친구들
15:30 모여라 딩동댕 스페셜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오스카의 오아시스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16:45 곰디와 친구들(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뽀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재)
19:30 EBS뉴스
19:50 대한민국 화해프로젝트 〈용서〉(재)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테팔〉
21:30 한국기행 〈제주도〉
21:50 EBS 다큐프라임 〈아시아 음식의 비밀, 장〉
22:45 달라졌어요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24:05 지식채널e(재)
24:10 EBS 특별기획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재)
01:00 특집다큐 〈길 위의 인문학〉

EBS플러스 1

00:00 알짜 국어 문법
00:50 2013 논구술 〈인문계 주제별 기출분석〉
01:4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I〉
02:30 〃 〈수학 I〉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04:10 〃 〈사회〉
05:00 〃 〈한국사(상)〉
05:50 2013 포스 〈수학 I A형〉
06:40 압축탐스런 〈물리 I〉
07:30 2014 포스 〈문학 I〉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 〉(재)
09:10 〃 〈수학 I 〉(재)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10:50 2013 포스 〈수학 I A형〉(재)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2:10 5분 과탐·물리 I
12:15 수능특강 〈수학 I A형〉
13:05 〃 〈수학 II〉
14:00 〃 〈국어A형〉
14:50 〃 〈한국사〉
15:40 〃 〈동아시아사〉
16:30 〃 〈세계사〉
17:20 〃 〈세계지리〉
18:10 〃 〈법과 정치〉
19:00 〃 〈생활과 윤리〉
20:00 수능특강 〈국어 A형〉(재)
21:00 〃 〈한국사〉(재)
22:00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23:00 〃 〈국어영역 문법 다지기 A형〉

EBS플러스 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07:30 나의 성공비결
08:00 행정사 시험대비강좌
08:30 의학·치의학·약학 적성시험대비강좌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09:10 TV 중학 〈국어①②〉
09:50 〃 〈수학①(상)〉
10:30 〃 〈역사①〉
11:10 〃 〈국어③④〉
11:50 〃 〈수학②(상)〉
12:30 등업신공 〈수학①(상)〉
13:10 〃 〈수학②(상)〉
13:50 〃 〈과학②(상)〉
14:30 〃 〈수학②(상)〉(재)
15:10 스쿨랜드
15:20 만점왕 〈국어③-1〉
15:40 〃 〈국어④-1〉
16:20 〃 〈국어⑤-1〉
16:40 〃 〈국어⑥-1〉
17:20 망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⑤-1〉
18:00 TV 중학 〈문학③〉
18:40 〃 〈비문학③〉
19:20 배움 플러스
19:30 중학 과학 자유탐구
20:00 중학 중간·기말 시험대비 문제풀이 〈사회①-1〉
20:40 〃 〈과학①-1〉
21:20 〃 〈과학②-1〉
22:00 〃 〈역사①-1〉
22:40 TV 중학 〈수학①(상)〉(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4일(음 3월 15일 乙卯)

子 36년생 마음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실행해야 한다. 48년생 주변의 시끄러운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 60년생 상호적인 작용을 하게 되어 있느니라. 72년생 반가운 소식이 있겠다. 84년생 살펴봐야한다. 행운의 숫자 : 60, 55

丑 37년생 상의하는 것이 좋다. 49년생 진위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힘들겠다. 61년생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점이 있을 것이다. 73년생 표준과 전형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겠다. 85년생 대담하게 도전해 볼 만하다. 행운의 숫자 : 28, 83

寅 38년생 장점을 활용한다면 효과가 크다. 50년생 주저하다가는 아까운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62년생 어려워 보여도 막상 실행한다면 가볍게 해결되리라. 74년생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세이니 신경 써야한다. 행운의 숫자 : 07, 29

卯 39년생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51년생 자기 주관이 있어야만 휘둘리지 않으리라. 63년생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될 수 있다. 75년생 생산성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97, 14

辰 40년생 한 템포만 늦추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52년생 굉 먹고 알 먹는 일이 보인다. 64년생 소비적인 요소를 청산해야 자기 발전을 꾀하게 된다. 76년생 옳다고 확신한다면 당연히 추진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38, 44

巳 41년생 가벼운 부딪힘이 있는 과정에서 실체를 확인하리라. 53년생 내면적 실정에 충실함이 좋다. 65년생 2차적인 상황으로 전환하면 효용 가치가 클 것이다. 77년생 실속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리라. 행운의 숫자 : 03, 09

午 42년생 결과물이 산출되는 기쁨을 맛보겠다. 54년생 치열한 노력이 수반 되어야만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66년생 상대의 내심을 읽을 수 있어야겠다. 78년생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10, 32

未 43년생 매우 힘들게 진행 되겠지만 결과는 알찰 것이다. 55년생 체계를 인식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무탈하다. 67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79년생 협조자를 자청하는 이는 이해관계인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33, 23

申 44년생 먹구름이 사라지면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56년생 잘 간수하지 못한다면 잃고 나서 후회하리라. 68년생 예견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라. 80년생 전후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52

酉 45년생 주위의 환경에 따른 변수가 크니 대안을 마련하자. 57년생 치밀하게 따져 봐야 할 때다. 69년생 여유를 갖고 세밀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81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가장 지혜로움을 깨달으리라. 행운의 숫자 : 57, 20

戌 46년생 선례를 참고한다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58년생 낱낱이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70년생 예측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82년생 불완전한 요소가 보이니 발본색원 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41, 66

亥 47년생 이완시켰을 때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더 커진다. 59년생 더불어 추진한다면 형세가 좋아진다. 71년생 대응 조치하면 문제점은 해결 된다. 83년생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78, 9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인간 장현성은 헐렁헐렁해요"

엘리트 이미지 벗고 '허당 아빠'로 인기몰이

배우 장현성은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았다. 모르고 있던 그는 "아, 그러네요. 디너쇼라도 할까요?"라고 웃으며 되묻는다. 당연히 20년 동안 몇 편의 작품에 출연했는지도 잘 모른다. 최근 출연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작가가 뽑아준 목록을 보니 A4 용지 4장쯤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장현성은 1994년 극단 학전에 입단해 창단 기념작이었던 연극 '지하철 1호선'으로 데뷔했고, 2004년 김수현 작가의 '부모님 전상서'에서 과묵하고 똑똑한 장남 역으로 대중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그 이후로는 주로 날카롭거나 혹은 예민하거나, 지적인 이미지로 엘리트 전문직 역을 해왔다. 지난해 드라마 '결혼의 여신'에서 맡았던 대책 없이 속물적이고 뻔뻔한 바람둥이 앵커 노승수 역이 그로서는 망가짐에 대한 첫 도전이었다.

현재 방영 중인 SBS 드라마 '쓰리데이즈'에서 경호실장 함봉수 역을 맡은 그는 대통령 저격을 시도했다가 죽음을 맞으며 초반에 퇴장했다.

최근 만난 그는 "처음부터 분량이 많지 않은 걸 알았지만, 남자로서 몸쓰는 역할이 욕심나기도 했고, 철저한 국가관이나 충정을 가진 무관 역할을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KBS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똑똑하고 귀여운 두 아들과 함께 출연해 패션 감각은 없지만 10년 넘게 같은 옷을 입는 소박함과 목이버섯으로 미역국을 끓이는 어수룩함으로 '아들 잘 키운 편안한 동네 아저씨'의 친근한 이미지를 더했다.

그는 "남자 열 명 중 여덟 명은 목이버섯을 모를 것"이라고 강하게 항변하더니 이내 "배우 아닌 장현성은 완전 헐렁헐렁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싫지만은 않은 듯했다.

배우로서 사생활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아직 어린 아이들까지 알려지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터.

"아이들이랑 놀면서 다른 건 다 잘하는 데 사진 찍어주는 걸 잘 못해요. 필름을 사진관에 맡기는 수고는 할 수 있었는데 디지털로 바뀌고 나서는 그게 저한테는 더 복잡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은 좀 있는데 요즘 사진이 없어서, 그게 아쉬웠어요. 아이들에게는 삼 주에 한 번 아빠와 모험을 떠나는 경험을 하고 그게 나중에도 추억할 수 있는 사진첩 하나로 남는 거잖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았어요."

큰아들 준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한 건 다행스럽고도 좋은 일이다.

"준우가 꽤 괜찮은 어린이인데 자신감이 없었어요. 장남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동생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했어요. 잘하는 것만 하고, 자신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런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연출 전공으로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했지만 그건 '공인된 실업자'에 불과했고, 생활고 때문에 월급 준다는 학전 오디션을 본 것이 배우 인생의 시작이다.

새로 시작할 영화를 준비하는 그는 "늘 지금 하는 작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상한 질문이지만 20주년을 기념할 겸 '배우'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휴대전화를 뒤적여 메모를 찾아 읽어준 답은 '저 위에 누군가 날 좋아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였다. /연합뉴스

버나드 박, 'K팝스타 3' 최종 우승

"아직 배울게 많아" … 소속사 JYP 선택

버나드 박이 SBS 'K팝스타3'에서 최종 우승했다.

버나드 박은 13일 '일요일이 좋다-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시즌3'(이하 K팝스타3) 결승전 파이널 무대에서 샘김과 대결을 벌여 최종 우승했다.

1라운드에선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선곡한 버나드 박이 286점으로 앞섰다. 빅뱅의 '거짓말'을 부른 샘김은 278점을 얻었다. 2라운드에서 알켈리의 '아이 비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를 부른 버나드 박은 스팅의 '잉글리쉬맨 인 뉴욕'(Englishman In New York) 무대를 선보인 샘김보다 12점 부족한 278점을 얻어 뒤 쳐졌다.

막상막하인 상황에서 문자 투표까지 합산한 결과 최종 우승자는 버나드 박으로 발표됐다. 우승자가 발표되자 버나드 박은 얼떨떨해 하며 휘청거렸고, 샘김은 버나드 박을 와락 안으며 축하해줬다.

버나드 박은 자신의 소속사로 박진영이 수장으로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했다. 버나드 박은 "아직 배울 게 많기 때문에 박진영 대표님이 잘 가르쳐주실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황혼 부부의 남은 인생은 …

달라졌어요(EBS·밤 10시45분)=노랑머리 멋쟁이~ 남다른 패션 감각까지 겸비한 아내. 2년째 통장 일을 하며 적극적이고 사교성 좋은 아내는 어딜 가나 인기 만점이다. 최근 관절수술을 한 아내는 친구들과 노래교실을 가고 취미생활을 즐긴다. 한편, 33일 동안 아내 병간호를 했던 남편은 바깥일로 바쁜 아내가 못마땅하다.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남편은 취미생활도 하나 없이, 요양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돌보고 원룸 관리하는 게 전부다. 하지만 그는 아내와 단둘이 여행도 다니면서 남은 인생을 알콩달콩 사는 것이 소망이다. 친구가 우선이고, 자신에게 소홀한 아내 때문에 남편은 섭섭하고 외로움만 쌓인다. 과연 이 황혼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흥부네 11남매 13남매로 돌아왔다

인간극장(KBS1·오전 7시50분)=2010년 방영되어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흥부네 11남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4년 봄,

11남매는 13남매가 되어 돌아왔다. 게다가 그해 큰아들 김영광(25)씨는 김인아(여·24)씨와 결혼, 두 명의 아이를 낳으며 부모의 뒤를 이어 육아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4년간 다른 형제들도 각자 성장하여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13명의 아이를 낳으랴 키우랴 쉴 틈 없이 달려온 어머니 함은주(43)씨. 막내를 낳으며 생명이 위태로웠던 그녀는, 다산으로 인한 하지정맥류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가족들을 뒤로한 채 급히 수술대에 오르는 은주 씨.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며, 온 가족은 새삼 엄마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낀다.

'프로레슬링은 쇼!' 발언의 전말

그때 그 사람(채널A·오후 8시30분)=한국전쟁이 끝나고 먹고 살기 힘들던 1960년대 초, 실의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던 국민스포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프로레슬링. 많은 프로레슬러 중에서도 이 시대를 호령한 3인방이 있었다. 바로 '박치기왕 김일', '드롭킥의 명수 장영철', '당수의 달인 천규덕'이다. 프로레슬링 경기가 열리던 날이면 서울 장충체육관의 9000석이 꽉꽉 들어찰 정도로 프로레슬링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1965년, 그 인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벌어졌다. 일명 장영철의 '프로레슬링은 쇼!' 발언 사건. 과연,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 보릿고개시절 우리 국민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주었던 60년대 국민스포츠, 프로레슬링의 이야기를 1세대 마지막 프로레슬러인 천규덕을 통해 들어보자.